

목 차

■ 한미 FTA, 개방과 경쟁을 통한 도약

Executive Summary	1
I. FTA, 왜 해야만 하는가?	2
II. 왜 미국인가?	7
III. 한미 FTA 기대 효과	7
IV. 한미 FTA 협상 일정	13
V. 향후 추진 전략	15
< 토론 >	16
■ HRI 경제 지표	35

한미 FTA, 개방과 경쟁을 통한 도약

□ FTA, 왜 해야만 하는가?

- 현상 만족시 경쟁에서 낙오 : 한국 경제는 수출입이 GDP의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수출 시장 확보가 절실한 상황임
 - 특히 중국, 인도 등 후발 공업국들의 세계 수출 시장 잠식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한국 경제가 현상에 만족할 경우 세계 11위 교역국 지위 유지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 세계는 FTA 체결 전쟁 중 : 현재 전세계적으로 발효 중인 FTA가 180개이며, 이는 세계 무역의 50%를 차지하고 있음

□ 왜 미국인가?

- 미국은 최상의 FTA 파트너 : 미국은 세계 최대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중국, 일본, ASEAN 시장 규모를 합친 것보다 큰 규모임
- 미국 시장 내 우리의 현재 위치 : 중국의 저비용 경쟁력과 일본의 기술 경쟁력 사이에서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음

□ 한미 FTA 기대 효과

- 가시적 효과 :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미국 시장의 안정적 확보와 수출 증가, 외국인 직접투자 (FDI) 유입 확대, 국민 소득 증대, 고용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됨
- 보이지 않는 효과 : 이외에도 대외신인도 향상, 개방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서민가계의 후생 증대, 한미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의 승격, 동북아 허브로의 도약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 한미 FTA 협상 일정

- 협상 일정 : 사전준비협약('06년 3월) → 1차 협상(6월) → 협상타결 추진('07년 3월)
 -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전략적, 주도적 준비로 한미 FTA 출범을 도출할 것임

□ 향후 추진 전략

- 의료, 교육서비스 개방 대응 방향 : 공공서비스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상할 계획임
-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인 대화 : 이해관계자와의 대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한 협상 과정을 진행할 것임

한미 FTA, 개방과 경쟁을 통한 도약

- 출처 : 21세기 동북아미래포럼
- 일시 : 2006년 5월 2일
- 연사 :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 주최 : 중앙일보, 현대경제연구원 공동

주제 발표

I. FTA, 왜 해야만 하는가?

제가 2월 3일에 한미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를 협상 발표한 이후 상당한 관심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미국과 FTA를 해야 하는지 설명을 드리고 그 기대 효과, 협상 일정 그리고 추진 전략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현상 만족시 경쟁에서 낙오

제가 3년 전에 정부에 통상 조정관으로 들어왔을 때 FTA 회원국 150여 개국 중에서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가 두 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두 나라가 몽골리아와 한국이었습니다. 그 개방 개혁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10번째 경제 규모

를 유지하기가 힘들 뿐 더러 경쟁력을 유지 못합니다. 지금 중국과 우리와 경제력의 차이는 약 2년 내지 2년 반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목표 중에 하나가 1인당 소득 만 달러에서 2만 달러를 달성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많은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이 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가는데 보통 10년 안에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홍콩,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5년, 일본 같은 경우는 6년, 스페인 같은 경우는 9년 인데 우리는 11년째입니다. 우리가 현재 중국과 2004년 기준으로 무역 흑자가 하루에 1억 달러였고, 2005년도에는 1억 천만 달러였는데 이게 무역협회 보고서에 보면 2010년도에는 적자로 바뀝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중국과 경쟁해서 패배하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원나라 (몽골리아), 청나라(만주)가 어떻게 됐는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약 1년 반 전에 금호 타이어 컨테이너 13개가 태평양 중간에서 부산항으로 다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멕시코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하는 바람에 200 달러 타이어가 250 달러가 되어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FTA 체결한 국가들, 예를 들어 일본 타이어는 계속 수출이 되고 우리나라 타이어는 수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무역 의존도가 GDP의 70% 정도 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시장 확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이런 금호 타이어 컨테이너와 같은 경험을 다시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멕시코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04년 기준으로 무역 흑자가 25억 달러였는데 그게 무역흑자 전체의 14.8%입니다. 이것이 일본과 멕시코가 FTA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25억 달러가 아마 18억 내지 19억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폐쇄적인 정책을 가지고 성공한 나라는 없습니다. 이 한미 FTA 비판하는 건 좋은데, 비판 받을 부분은 꼭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FTA를 안 하고 개방 개혁 정책을 추진 안 한다면 적어도 북한이나 쿠

바나 동구권이나 리비아의 경제가 성공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구한말 때 폐쇄 정책을 유지해서 한 나라는 지배자가 됐고 한 나라는 지배를 당했습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 같은 나라는 관계가 많이 가깝고, SM(Standard Missile) 탄도 미사일도 같이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한테서 허가받고 플루토늄을 국내에서 제조할 수도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과연 FTA는 어떤 용도로 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미국 관계에서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세계는 FTA 체결 전쟁 중

현재 180개 FTA가 세계 교역량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FTA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이 FTA 역시 2년 안에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DA(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개발어젠다)가 지금 다자 차원에서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국가들이 지금 양자 FTA 방향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꼭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요새 강하게 느낀 부분인데 이게 일단 FTA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되고 이 기회를 한번 놓치면 버스를 이번에 못하면 또 온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버스는 놓치면 그 버스는 다시 오지는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1995년도에 FTA 체결한 국가가 교역량이 30%였는데 2004년도에는 약 35%이고 금년에는 39%까지 올라간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 한국의 FTA 추진 현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3년 전에 정부에 들어왔을 때 WTO 150개 회원국 중이 FTA 체결하지 않은 국가가 한국과 몽골리아 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멕시코와 FTA가 체결되어서 금호 타이어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가 워낙 통상 분야에는 소극적이어서 미국과는 FTA가 잘 추진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먼저 캐나다와 FTA를 추진했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게 소고기와 곡물, 다시 더 간단히 말씀드리지만 미국이 우리에게 수출하는 상품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와 먼저 FTA를 출범시키고 난 다음에야 똑같은 경쟁 상품을 수출하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도 관심이 상당히 생겨 가지고 2005년 1월부터 6월까지 FTA 예비 협의를 6개월 동안 했습니다. 총 세 번 협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소고기 같은 경우는 광우병이 터지기 전에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을 보면 한우가 36%, 캐나다산 5%, 미국산 5%, 호주 뉴질랜드산이 9%였는데, 캐나다한테 무관세로 했을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이 바뀌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남쪽을 가서는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2004년 기준으로 봐서 우리가 10개 나라와 무역 흑자가 18억 달러입니다. 관세를 철폐했을 경우에 72억 달러로 증가합니다. 이걸 공산품, 농산물만 가지고는 것이고 서비스분야, 예를 들어 이동통신이나 건설 같은 경우를 포함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커집니다. 중요한 것은 중국과 일본이 우리보다 협상을 더 먼저 시작해 가지고 관세 철폐 시점을 중국 같은 경우는 2010년, 일본은 2012년이 됐었습니다. 우리는 늦게 시작해서 ASEAN 쪽에서 2014년까지 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까지는 못하고 2009년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협상을 늦게 시작했지만 선점 효과라는 건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2009년으로 앞당겼습니다. 어제 여러 개의 신문사에서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지난주에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필리핀에 가서 5월 중순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개성 공단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완전히 결정이 날 것입니다. 참고로 태국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사정 때문에 이번에 사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ASEAN 국가와는 5월 중순에 끝이 나고 북쪽에 갈 것입니다. 북쪽에서는 러시아 시장이 역시 큼니다. 러시아와도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자마자 FTA를 체결하자는 제안을 해서 그쪽에서도 거의 받아들여 가지고 잘하면 금년 말에 러시아가 WTO에 가입할 텐데 그 후에 러시아와는 계속 협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가서는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유럽자유무역연합), 노르웨이 등과 6개월 안에 FTA 협상을 끝냈습니다. 따라서 지금 25개국과 EU에서도 6개월 안에 EFTA와 끝낸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인상적이라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FTA를 한다고 거꾸로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이런 국가들과 FTA를 하는데 반면에 중국과 인도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관세 철폐 때문에 받는 혜택이 있다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서 말씀 안 드린 것 중에서는 인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먼저 FTA를 시작해 가지고 우리는 2년을 잡았는데 인도 측에서도 놀랍게도 1년 반 안에 끝내자는 제안이 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태로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진행시키고 있고 금년 6월 달에 가서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네 개 나라와 FTA 공동 연구가 끝이 납니다. 그 시점에서는 우리가 FTA 협상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 한국과 칠레의 FTA 1년간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우선 대칠레 수출이 58%가 증가를 했고, 우리 주요 수출 품목 같은 경우 무선 전화기는 250%, 칼라 TV는 108%, 자동차는 58%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한국과 칠레의 FTA의 맨 처음에 비준하려고 했을 때 한양대에서는 지금 발효하고 난 다음에 농업 분야에서 피해가 324억 달러를 예측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보면 수입 증가는 103억 원인데 보통 우리가 피해를 잡을 때는 40%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처음에 피해 규모로 예상했던 것에 32%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II. 왜 미국인가?

왜 미국과 FTA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수입 시장은 ASEAN, 중국, 일본보다 더 큼니다. 미국 시장 점유율을 보면 중국은 계속 1995년부터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14.6%를 차지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8.3%인데 우리는 3.3%에서 2.6%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작년에는 중국과 인도는 20% 이상 대미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5.2% 정도 수출 규모가 하락했습니다. 미국 시장 점유율 1% 증가할 때 수출은 약 5.9%가 증가하고 GDP는 1.4% 증가합니다. 따라서 미국 시장은 우리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III. 한미 FTA 기대 효과

■ 가시적 효과

지금 우리가 한미 FTA를 체결 했을 경우, 관세 철폐를 했을 경우 잘하면 대미 무역 흑자가 159억 내지 181억 달러 증가됩니다. 대세계 무역흑자가 106억 내지 138억이 증가된다는 예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식당을 차려놓고 그 식당 주인이 음식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매일 골프를 친다고 했을 경우에 대미 무역흑자는 51억 달러 감소가 되겠고 대세계 무역흑자는 11억 달러 감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대세계 무역흑자는 2004년도에 294억 달러였고 2005년도에는 237억 달러였습니다. 미국에서 우리한테 FTA 직접 투자가 예측되는 금액은 38억 내지 96억 달러가 증가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에 투자하는 양은 178억 내지 223억 달러 증가가 되겠습니다. 국민 소득은 1인당 30만원이 증가된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인 가족으로 치

면 약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용 효과는 10만 4천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수치를 내놓으면 굉장히 비판을 받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나 업(up)된 숫자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들이 진짜냐, 아니면 가짜라고 비판하는 경우도 있고 이걸 조작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수치는 안 믿어도 좋습니다. 그러면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의 수치는 사실(fact)이니까 이걸 부인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다음의 국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칠레는 2003년도에 미국과 FTA를 체결했는데 무역 흑자가 2003년에서 2004년 1년 사이에 10억에서 11억 달러 증가했고 미국이 칠레에 투자한 금액은 3억에서 10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은 FTA 체결한 후에 3%에서 6% 증가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미국이 싱가포르에 투자한 금액이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6억 달러에서 66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무역 흑자를 15억에서 18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싱가포르 역시 2004년도에 FTA 체결한 후에 이런 효과를 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멕시코 같은 경우는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한 후에 사정이 안 좋아졌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멕시코 같은 경우는 1994년도에 NAFTA, 미국과 FTA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1993년도에 보면 대미 무역 적자가 24억 달러이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무역 흑자가 556억 달러이었습니다. 미국이 멕시코에 투자하는 금액은 NAFTA 10년 전 즉 1983년부터 1993년을 보시면 연평균 27억 달러이었습니다. NAFTA 체결한 후 연평균 1994년부터 2005년을 봤는데 연평균 85억 달러이었습니다. 다시 보시면 NAFTA 전에 미국이 멕시코 대미 무역 흑자가 10년 동안 연평균 1억 달러밖에 안 났었습니다. NAFTA 체결한 후 무역 흑자가 연평균 253억 달러로 증가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안 나오는 부분이 멕시코 같은 경우는 1995년도에 외환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NAFTA를 통해서 이 외환 위기에서 탈출한 셈입니다. 반면 우리는 1999년도에 외환 위기를 맞아서 외환 위기에서 벌써 졸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FTA 발효로 1984년 FTA를 맺었는데 10년 동안 연평균 경

제가 5% 성장을 했고, 대미 무역 흑자도 4억 달러에서 53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일자리 창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74만 명, 물론 멕시코는 우리보다 인구가 더 많고 임금이 더 싸기 때문에 74만 명 정도가 됐습니다. 싱가포르에는 4만 명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 탑 50개를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대미 무역 흑자가 11억 달러 증가하고 전세계 무역 흑자는 13억 달러 증가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총 수출액은 13.3%를 차지하고 있고, 고용 일자리 같은 경우는 제조업에서는 24만 명이고 직간접적으로는 154만 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관세가 2.5% 인데 우리가 흔히 수학적으로 2.5% 관세 철폐한다고 해서 무슨 효과를 보겠느냐 하실 수 있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2.5% 관세 철폐했을 경우에 소나타 같은 경우는 572 달러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혼다와 도요타와 현대 소나타가 같은 클래스에서 경쟁 상품인데 572 달러를 빼면 현대 소나타가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는 픽업트럭이 25% 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픽업트럭 같은 건 제조하지 않지만 그걸 언제든지 제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시장 개발 가능성이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세 철폐 하나 때문에 이렇게 저렴한 가격 때문에 저렴한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것은 물론입니다. 지금 한국 FTA 정책에 대한 25개 국가 EU 집행 위원회의 보고서는 보면 칠레 와인이 15% 관세가 있고 매년 2.5%,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5% 밖에 철폐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와인이 더 싸진 건 아니지만 칠레 와인이 시장 점유율이 우리나라에서 5%에서 24%가 됐고 금년에는 29%로 올라갑니다. 그걸 EU에서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FTA를 체결하면서 그 심리적인 효과가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역 협회에서도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미국의 60% 바이어가 한미 FTA를 체결했을 경우에 그만큼 구매량을 늘리던지 새로운 걸 구매하겠다고 설문 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섬유 같은 경우도 역시 우리 관심 품목입니다. 섬유 같은 경우는 미국이 관세가 평균 2.5% 밖에 안 되는데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시는데 그건 너무나

수학적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숫자가 너무 많아서 다 외우지는 못했지만 섬유도 약 500개 넘는 품목이 20%가 넘는 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역시 5%가 넘는 건 약 950개가 됩니다. 그래서 역시 섬유 분야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가중 평균한 관세율은 미국이 우리보다 더 높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섬유 분야는 13.1%이고 우리는 9.3%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중국산이나 일본에서 수출되는 품목보다 우리가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약 100억 달러의 수입 시장 규모를 유지해 왔습니다. 미국에서 수입되는 게 약 20%, 10조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농산물 생산 금액은 2004년도 기준으로 37조 3천억 원입니다. 관세 철폐를 했을 경우에 농산물 생산 규모가 1조 2천억에서 2조까지 감소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수입 증가는 약 2조 내지 3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대체효과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고기를 예를 들자면 2001년도에 한우 가격이 9,600원이었는데 2003년도에 가서는 15,600원이 됐습니다. 동기간에 수입은 더 하락했습니다. 3,700원에서 3,450원이 됐는데 한우가 4개나 더 비싸지만 지난 2년 동안 시장 점유율 36%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완전히 시장이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국영무역을 해서 소고기 수입할 때 완전히 시장 왜곡 효과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한우 하면 이게 품질이 아주 좋은 걸로 되어있고 수입산 하면 품질이 좋지 않은 걸로 알고 구입을 했습니다. 특히 곡물 같은 경우 옥수수는 99.3%를 해외에서 수입해 오고 밀 같은 경우는 99.8%를 수입해 오고 대두 같은 경우는 약 93%를 수입해 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다른 캐나다나 호주에서 수입해 오는 곡물로 대체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밀 같은 경우는 0.2%가 되어 있는데 수치를 말씀드리자면, 1995년도에는 우리가 1인당 쌀 소비량이 116.9kg이었는데 재작년에 81kg으로 하락해서 작년에는 79kg, 금년에는 더 하락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1인당 소비가 63kg로 떨어져 있고 반면 우리는 완전히 수입하는 밀가루 소비량이 1인당 30kg가 됩니다. 보리는 반면에 1kg 밖에 안 됩니다.

■ 보이지 않는 효과

보이지 않는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국가 신용이 상승이 됩니다. 칠레 같은 경우는 A-에서 A가 됐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투자 유치뿐만 아니라 우리가 1,831억 원에 대한 대외 채무가 있는데 이자에 대해서 부담이 감소됩니다. 약 187억 내지 374억 원이 감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FTA는 상호 인정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자격증을 서로 인정해 줬을 경우 우리가 그 프로페셔널들을 북미 시장에 진출시켰을 때 변호사, 변리사, 수의사 이런 경우에 그 효과에 대해서 계량화가 안 된 상태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유통업을 1996년도에 개방했을 때, 우리 유통업자들이 다 망한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탑 5를 보면 1위인 이마트가 점포가 79개가 되고, 중국에 6개 진출되어 있습니다. 2위가 삼성이 운영하는 홈플러스가 있고, 3위가 롯데마트입니다. 지금 4위가 까르푸인데 까르푸는 아일랜드에 매각이 됐고, 5위가 미국의 월마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간단한 시장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코카콜라가 시장 점유율이 줄어드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지난 5년 동안 19.5%에서 13.3%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 일본 문화를 개방하겠다고 했을 때 아마 이게 지금 다 영향이 클 것이라고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거꾸로 우리 문화 상품들이 일본에 수출되는 상황이고, 수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코끼리 밥솥을 다들 사 가지고 왔는데 이제는 쿠쿠 밥솥을 더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을 보면 국제무대에서 우리 상품들이 경쟁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자신감을 갖고 진출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구에서도 우리가 미국한테 이겼습니다.

그러면 FTA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제조업자, 서비스 제공자, 농민, 영화인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FTA는 소비자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고기가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비쌉니다. 1kg당 43달러 70센트입니다. 감자 같은 경우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쌉니다. 사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비쌉니다. 사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수입이 전혀 안됩니다. 검역을 해서 우리가 1989년부터 계속 막아놓았습니다. 한미 FTA가 단순히 양국간 경제 관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한미 관계를 강화 시켜준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

습니다.

요새 언론에 보면 한미 FTA를 함으로써 한중 관계를 무시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적인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중은 우리가 하루에 무역흑자가 천만 달러, 그리고 1,400개 기업이 진출해 가지고 32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1주일에 우리 비행기 488편이 중국에 가고 있고, 우리 국민들 50만 명이 중국에 가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중국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국가들과 FTA를 할 때는 이것을 줄속추진해서는 안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FTA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수석대표를 맡아보니까 이걸 우리가 총론만 강했지 각론에 들어가서는 상당히 약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먼저 농산물, 공산품 둘 다 90% 이상 개방하겠다는 약속을 깨면서 농산물 같은 경우는 56% 밖에 개방을 안 갖고 나왔기 때문에 약속을 깨면서 중단이 됐습니다. 중국과 FTA를 하자는 분이 계시는데 좋습니다. 그걸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 두 가지 대안을 꼭 말씀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농산물 생산량이 34조 7천억 원인데 우리 연구 결과를 보니까 수입량이 중국 같은 경우는 작으면 10조 많으면 90조까지 수입이 되는데 그 보완 대책을 동시에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공산품에 그렇게 자신이 있습니까? 공산품 자신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안 됩니다. 지금 중국 전자제품 회사 같은 경우는 일본에 가서 7개 경쟁 회사와 붙어서 실패한 다음에 '한국은 만만하다, 엘지와 삼성만 물리치면 된다.'라고 해서 가격을 60%로 하자는 것입니다. 평균 관세 8% 제거하면 52%입니다. 30세 미만은 브랜드 로열티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걸 삽니다. 그걸 다 준비하고 중국과 FTA를 하자는 것입니까?

그래서 언론에서 지금은 우리가 동북아 시대에서 중심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중국과 일본과 먼저 FTA를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 보완 대책까지 동시에 말씀하십시오. 한미 FTA는 동북아 허브로 우리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이고 우리가 동북아중심 국가가 될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IV. 한미 FTA 협상 일정

협상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갑자기 줄속 추진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우리는 미국과 분기별마다 통상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미국과 우리 관계의 통상이슈들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회의를 14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모를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2003년부터 한미 FTA에 관련된 타당성 검토를 계속 해 왔습니다. 이걸 안 한 게 아닙니다. 숫자도 여러 번 뽑았고 KIEP(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대외경제 정책연구원)이나 농촌 연구소나 국책 연구소를 포함해서 무역협회, 전경련을 포함해서 공개된 곳에 13개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5년도에 1월부터 6월까지 FTA 예비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1년 동안 통상 장관 회의를 6번이나 했습니다. 즉,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것을 적극 추진한 것입니다.

FTA라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세 철폐 분야가 있고 두 번째는 서비스 및 투자 분야가 있고 세 번째는 지적 재산권 분야가 있습니다. 지적 재산권은 1980년 중반부터 미국과 우리가 협상해온 탑 이슈입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작권을 저작 상호 하고 난 후에 50년 동안 보완하는 걸 70년으로 늘려 달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유명한 상표는 등록이 안 되어도 보호해 달라는 이런 이슈들을 서로 잘 알고 있습니다. 특허에 관련해서도 어떤 이슈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서비스 분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외환위기를 맞이했을 때 우리가 미국과 양국 간에 투자 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 양자간 투자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1999년, 2000년도에 서비스분야는 2년 동안 우리가 협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DDA의 차원에서 지난 4년 동안 서비스 협상을 미국을 포함한 여러

선진국들과 해 왔습니다. 관세 철폐에 대해서는 지금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 협상 체결하고 협상중인 차원에서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 왔기 때문에 많은 노하우가 생겼고, 지난 4년 동안 DDA의 차원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관세 철폐나 인하에 대해서는 많이 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이 한미 FTA를 하면서 소위 말하자면 최소한 뭘 얻어낼 것, 이런 표현을 쓰지 말라고 누가 말씀하셔서 안 썼지만 한 번 더 쓰자면 우리도 마지노선으로서 지켜야할 선이 있습니다. 그 테드라인, 미니멈 라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6월 30일에 미국 TPA(Trade Promotion Authority: 신속협상권한)가 끝나는 데 3개월 전에 미국 대통령이 국회에 통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3월 30일까지 협상을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2월부터 3월 30일 이면 13개월인데 그게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 우리가 FTA를 11개월에 끝냈습니다. 그리고 ASEAN이 9개월에 끝이 났습니다. EFTA가 6개월에 끝이 났고 미국 같은 경우 호주와 11개월에 끝을 냈습니다. 바레인과 오만 같은 경우 미국은 4개월 내지 6개월에 끝을 냈고 중미 CAFTA(Central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중미 자유무역협정) 국가들과는 12개월에 끝을 냈습니다. 그 숫자만 봐도 우리는 2월부터 내년 3월 30일이라면 13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2월 2일에 미국과의 FTA 출범 발표를 했는데 말레이시아가 미국과의 FTA를 3월 8일에 발표했습니다. 우리보다 한 달 늦게 출범했는데 끝나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는 우리처럼 과거에 분기별 회의나 아니면 투자 협정 협상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레이시아도 합니다. 만약에 이런 아시아 국가들이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일본이 미국과 협상을 먼저 진행시키고 우리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멕시코와 FTA 진행을 못했다고 해서 일본은 벌써 끝을 냈는데 감사원에서 감사받은 적이 있습니다. 2월에 1차 협상이 있을 것이고 한 달 내지 한 달 반마다 협상이 있을 것입니다.

V. 향후 추진 전략

지금 향후 추진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대미협상은 외교 통상부가 하고 국내 보완대책은 재정경제부가 총괄하고 최종 결정은 대외 경제 장관 회의에서 할 예정입니다.

의료나 교육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우려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이 분야에서 비영리를 영리로 해 달라고 과거에 양자나 다자 차원에서 우리가 요구를 봐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 서비스 분야는 우리가 이것은 절대 훼손시키지 않습니다.

의료 보험은 우리 같은 경우는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반면 미국 같은 경우는 15%, 약 4천 5백만 명이 의료보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아주 좋은 혜택이기 때문에 건드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교육 서비스도 초등학교, 중등학교는 역시 마찬가지로 공공분야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도 요구를 받은 적도 없고, 반더라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방을 못합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전 협상 과정을 진행시키고 국회와도 긴밀 협의를 하고, 또 이해 단체와 적극적인 협의를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엄격히 따지면 통상교섭본부는 협상하는 기구인데 그렇지만 지금 현재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홍보로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한미 FTA는 세계 최대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고 11위 현상 유지를 뛰어넘어서 소득 2만 달러 시대를 달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동북아에서 최초로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동북아 허브를 구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협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미 FTA는 앞으로 우리 장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적극 지지를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이상만 중앙대학교 교수) 저는 협상 전문가도 아니고 통상 전문가가 아닌데 몇 가지 얘기하신 부분 중에서 보완될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미 FTA가 우리 경제가 가야 될 생존 전략이다'에 동의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장 동력 하면 2만 달러가 아니라 3만 달러로 가는 데에 필수적이라는 것에 동의하지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2000년에 북한과 DJ 정권이 정상 회담 이후에 사실 방향은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우리가 벌였던 사업에 대해서 보면 엄청난 남남갈등을 야기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께서 얘기하셨던 방향 로드맵 다 좋지만 그것이 우리 조선 호텔 밖에서도 먹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들은 아마 다들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마는 제가 보면 한미 FTA가 다른 것에 비해서 활성화된 토론이 안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성 공단 문제가 나오니까 조금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도 경제 주체들이 정확하게 한미 FTA의 내용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론 전문가들은 알고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이 한미 FTA의 제도적 측면이나 협상전략 통상적 측면은 문제가 없이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란 제일 마지막 챕터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예를 들었지만 칠레나 싱가포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겠지요. 안보 측면에서 본인들이 원했을 것이고 또 칠레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방적인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개방도 국민 의식의 개방도의 측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처럼 폐쇄적인 나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봤을 때는 당연하겠지요?

그래서 이 한미 FTA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경제가 시스템이 완전히 글로벌 스탠더드화 되는 것입니다. 아까 개방과 경쟁을 통한 발전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의식도 그렇게 쉽게 글로벌 스탠더드화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글로벌 스탠더드는 진행이 되고 의식이 이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갭(gap)이 차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룬스타나 외국 자본에 대한 우리 태도를 봐도 소비 불매 운동을 하는 경우에 굉장한 문제가 야기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의식을 글로벌 스탠더드화 시키는 그런 노력에 대한 대응 전략이 어떤 것인지를 여쭙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을 간단한 문제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솔직히 IMF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외국 자본에 대해서 얼마나 환영했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왔다고 했을 때 우리 국민의 감성적 정서가 완전히 반대로 바뀐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 제가 볼 때에 우리 경제 발전 전략의 가장 중요한 건 서비스 부분입니다. 한국도 지금 제조업 중심으로 가서는 발전하는 데 제약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도 서비스 부분에서 우리 경제 발전의 모멘텀을 잡아야 하는데 결국 FTA가 되면 농산물이나 스크린쿼터 같은 것은 아주 지엽적(枝葉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은 그전에 가장 준비가 잘 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서비스 부분이 아마 다 우리가 과상적인 공격을 받게 될 텐데 공격이라는 건 경쟁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지만 그랬을 때 전선은 우리의 경제 발전의 전선과 한미 FTA가 됐을 때 우리 경쟁 전선은 서비스 전반에 걸쳐서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서비스 부분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 정서와 굉장히 관련된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까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보완 대책 협상에 대해 본부장이니까 직접 들은 건 아니겠지만 보완 대책을 재정경제부가 갖고 있고 관련 부처가 해결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협상 전략만큼의 비중을 두셔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해 봅니다.

정책이 중요한 건 콘텐츠보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국민의 감성적 정서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얘기해 주시고 개성 공단 이야기는 제가 북한 관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개성 공단 문제를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거느냐 하시는데 개성 지원자들이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해에 걸쳐서 거기에 필요성은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도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미 FTA 문제와 관련해서 협상 전략상 개성 공단 문제가 제기되는 건 아니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저는 미국으로써는 당연히 그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7천 명이지만 1단계가 되면 7만 명이 되고 3단계까지 가면 20만에서 50만 명의 북한 근로자가 고용이 되는 대단위 하나의 공단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지역은 결국 대미 수출 기지가 될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걸 간단하게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칠레나 싱가포르와 대응해서 개성 공단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한미 FTA에서 개성 공단을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통상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의 정치적 고려, 외교적 고려, 군사적 고려, 통상적 고려 이런 모든 것을 다면화된 상황 속에서 미국이 이것을 대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단순히 통상적인 측면이나 당위성을 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 개성공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면화된 전략을 통해서 한미 FTA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항상 주장하지만 어떤 전략 통상 측면보다는 대미 홍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다면화되게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정부에 모든 결정권이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미국에서 오래 생활을 해 봤지만 여기 여러 형성 과정을 보면 다면화된 채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다면하게 각계각층에서 뛰어 들어가서 왜 개성공단이 미국의 국익과 그렇게 나쁜 게 아닌지를 우리가 폭넓게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되어야만 한미 FTA 협상에서 개성공단의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풀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정부 차원에서 치고받는 모습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특사수도 생각하고 캘리포니아도 생각하면서 홍보도 감성적으로 들어가서 개성공단에서 물건만 만드

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의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는 애기도 나와서 미국사람들이 개성 공단을 로맨틱한 장소로도 생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도 환기시키는 다면한 전략으로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두 가지 문제를 여쭙어 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국민 공감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홍보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항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200개가 넘는 NGO들이 반대한다고 신문에서 본 적이 있지만 우선 우리가 맨 처음에 FTA를 출범시켰을 때 무역협회도 마찬가지로이지만 우리도 껄렙에 조사를 의뢰했지만 그때 국민 80.3%가 한미 FTA에 대해서 지지를 했었습니다. 물론 오늘 다시 해 보면 숫자가 달리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대하는 NGO들 중 저도 회원이었던 민변과 참여연대를 2주 전에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슈들을 많이 토론하고 어떤 이슈들이 걱정거리가 되는 것인지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협상하는 부처가 홍보를 한다는 것은 협상 전략을 밝히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계속 분야별로 의견 수렴을 하고 있고 또 현재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도 의견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부족한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나서서 그 분야에 계신 분들한테 가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관련 부처에서는 보완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공감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 더 활성화를 하고 어느 정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반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지하는 기사를 포함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십시오. 우리도 그것을 계속 참고로 하고 있고 또 여러 단체들과 대화를 해 나가면서 협상에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성 공단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유념하고 협상을 진행시킬 예정입니다.

(체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 자리에 초대를 받을 때는 이 자리가 동북아포럼이기 때문에 개성공단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 듣고 왔습니다. 제가 개성 공단을 잘 알지 못하지만 한미 FTA와 관련해서 생각을 정리하고 왔습니다. 그전에 잠깐 한 말씀드리자면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DDA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 연구원에서도 몇 명이 협상에 다녀와서 느낀 것이 'DDA가 좀 이상하게 가는 것 같다. 미국과 EU와 브라질 세 나라가 자기들의 포지션을 놓고 조금도 양보를 안 한다. 중국은 약간 엎드려 있는 편이고 본래 개도국을 대변했던 인도가 별로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좀 빠지는 느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가서 저는 DDA가 실패하리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설령 성사가 안 되더라도 실패라고 부르고 싶지 않은 것이 그런 다자 체제가 붕괴되는 지경까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건 아주 극단적인 경우이겠지만 DDA 자체가 올해는 넘기고 미국의 TPA 시한을 넘기고 가면 다자 체제를 붕괴는 안 되더라도 상당히 약화가 될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분명히 통상의 무게 중심은 DDA에서 FTA로 넘어갈 것이라는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DDA가 붕괴되거나 약화 될 경우에 나타나는 것이 그 동안 과거를 예로 볼 때 항상 보호주의적인 조치였습니다. 대개 선진국들이 보호주의적인 조치로 바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명히 다자 체제에서 힘을 빼고 FTA로 전부 몰려갈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한미 FTA가 주는 우리 시사점이라는 게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리 보험을 들어두는 거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커다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여건을 일단 만들어 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우리가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과 FTA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이 들어와서 우리 산업이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라는 것에 공감하는데 더 큰 문제는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국가인 중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출의 측면에서 보면 정말 우리 국익을 위해서 아주 바람직한 하나의 방향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중에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물건과 서비스, 농산물들이 아주 저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과 FTA와 중국과 FTA에서의 차이점이 그것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농산물이 들어오겠지만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악화시키는 것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질이 높은 것들이 들어와서 결국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으로부터는 농산물도 그렇고 공산품도 그렇고 아직 이 단계에서는 상당히 저급이 들어와서 우리의 문화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을 거치지 않을까 혼돈된 어떤 시기를 겪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국책 연구원에 있어서가 아니고 한미 FTA는 본래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점은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여기에 오신 분들이 동북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저는 분명히 이 한미 FTA는 동북아에 어떤 경제 협력이나 FTA 단계로 가는 과정에서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일본이나 중국은 미국에 무역이나 투자나 기술에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미 FTA가 되면 경제적인 비용이 상당히 그 나라에는 증가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한중, 한일, 또는 한중일 3개국 간에 FTA를 위한 하나의 큰 자극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중심적인 역할이라기보다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저는 동북아 경제 협력이나 한국의 입장 강화에 있어서도 상당히 한미 FTA가 주는 시사점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성공단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가서 논의해 본 적도 없고 저 혼자 많이 생각을 해 본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분위기를 보면 자칫하면 개성공단 이슈가 한미 FTA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굉장히 우려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이 되면 한미 FTA가 잘 되는 것이고 안 그러면 이건 잘못된 것이고 이런 이분법적인 흑시 접근이 있을까봐 거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이상만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개성공단

이슈는 정치, 외교, 경제의 세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입니다.

이건 한국의 통상교섭 본부, 미국의 USTR(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미국무역대표부)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NSC나 외교부나 국방부나 통일부나 이런 곳에서 범정부적으로 대체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즉, 미국도 노력을 해야 하고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되고 북한이 커다란 플레이어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개성공단 이슈를 가지고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의 QIZ(Qualified Industrial Zone: 제한적 산업지대)라고 하는 이집트에서 제조된 물건을 이스라엘 산으로 인정하는 것, 또 싱가포르의 방적사 기준 원산지 규정과는 이슈가 다릅니다. 우리가 그걸 원용을 할 수는 있겠지요. 보편적인 원산지 규정에 대한 특례규정이라는 측면에서는 원용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성격이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이집트나 팔레스타인이 당시에 미국의 적성 국가도 아니었고 지금 싱가포르의 경우에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에서 제조되는 물건과 개성공단에서 하는 물건은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정치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제 레프 코위츠 미국의 대북 특사가 몇 마디 얘기해서 결국 우리 정부도 개방을 시키고 했는데 저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금 개성공단에서 여러 분들 워낙 잘 아시겠지만 최저 임금 50달러 지불하고 7.5달러 사회 보험료가 있지만 그건 북한 당국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에서 알아서 50달러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의 제기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걸 인권 문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좀 더 투명하게 북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북한 당국과 잘 협의를 해서 그런 걸 우리가 직접 지불한다든지 아니면 북한 당국이 지불하고 있다는 어떤 증거를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으로써도 물론 주의할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전체적인 북한 전체의 인권 문제와

연결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코 작은 임금이 아닙니다. 이게 제가 캄보디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캄보디아 중앙 부처의 공무원 한 달 월급이 25달러입니다. 그건 그 나라 사정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 50달러가 적은 것은 아니고 다만 그 투명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경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어떤 진출 기지로써 활용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미국이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공청회 과정에서도 섬유 업계가 제기한 우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저임금으로 생산된 제품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면 우리 업계가 커다란 위협을 당한다는 것을 미국의 USTR이나 정부 당국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은 인권 문제와 연관을 시키고 있고 안보 문제와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안다면 미국에 대해서 왜 북한의 개성공단이 중요한지 제가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 중요한 것이냐 하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고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또 북한의 시장 경제에 대해서 교훈을 준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미국에는 알려줄 필요가 있고 우리는 북한과도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이 개성 공단이 북한에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세계적인 수출 기지로 만들고 2단계, 3단계에서 중화학 공업 단지 만들고, 앞으로 장래를 볼 때 이러한 개성 공단이 이렇게 북한 경제에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결국은 북한과 미국이 협의를 하고 타협을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개성 공단 이슈라고 봅니다. 단지 협상의 이슈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협상의 일부이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것을 별개로 보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러한 한미 FTA 협상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활용해서 이러한 많은 이슈들을 함께 풀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중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채욱 박사님께서 DDA 실패라는 것을 정리해 주셨는데, 우리가 원래 개방의 정도를 갖고 DDA를 출범시켰는데 아까 말씀드

렸듯이 몇몇 나라들이 강한 입장을 굳혀 가지고 입장에서 협상이 거의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협상은 끝이 나겠지만 과연 우리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높은 수준의 개방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농산물 같은 경우는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곡물과 축산물입니다.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 참깨, 마늘, 곡물 233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대책을 세운다는 건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두 나라 간에 검토를 할 때는 사실 중국의 다양한 품목 수 때문에 그만큼 검토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보완 대책을 세우기는 물론 더욱 어렵습니다.

(장달중 서울대학교 교수) 저는 간단히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설명을 들어보면 FTA를 하면 무역 흑자가 늘어나고 다 좋아지는데 무역 흑자가 늘어났을 때 지금도 미국이 압박을 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데 FTA 하에서 우리가 무역 적자가 났을 경우에 미국이 압박을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GATT 체제하에서도 미국이 자기들 국익에 따라서 일본 같은 경우 수치 조정까지 관리 무역을 시도했는데 FTA가 되면 이런 것이 없어질 것이냐 이런 것이 제가 첫째로 가지고 있는 의문입니다. 두 번째는 기본적인 FTA의 철학이 국민들에게 잘 전달이 되지 않은 것 같은 인상이 듭니다.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어제도 서울대학교 정문이 폐쇄가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나 하면 황우석 지지 그룹들이 데모를 해서 폐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지지그룹들의 성향을 들어보니까 서울대학교 교수들 대부분이 미국에서 박사를 해서 미국의 음모설에 의해서 이런 걸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종교적으로 믿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렵지만 정부가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국책연구소에서 홍보를 충분히 했다고 하지만 제가 어떤 경제학 교수한테 들은 얘기인데 요새 국책 연구소에 전문가들이

다 앉아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자기들끼리 하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제가 대통령께도 직접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부에 계신 분들이 신경을 쓰셔서 이런 포럼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좀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와서 많이 배웠습니다.

(제성호 중앙대학교 교수) FTA가 이해득실이 다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오늘 주로 대미 수출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많이 말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역으로 특히 취약한 부분의 우리 경제가 미국의 무차별적인 공세에 노출이 되어서 산업 기반이 붕괴되는 게 아닌가 하는 식의 우려가 일각에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은 말할 것도 없고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법률가치, 그래서 경제 부문 무역은 좋은데 나라의 기본 인프라까지 위협받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교조 교재를 가지고 왔습니다. 스크린 쿼터 문제에 있어서 146일에서 73일로 줄어들었는데 여기 전교조 교재를 보면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 EU 같은 나라에서는 헌법 조항에서 한국의 스크린 쿼터를 벤치마킹해서 오히려 그걸 넣고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문화 다양성 협약(Protec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Contents)¹⁾도 채택이 되고 그런 걸로 해서 문화 주권을 수호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경제 협력이 경제 종속, 나아가서는 문화 종속으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146일에서 딱 절반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없었는지 그런 걸 알고 싶습니다.

1) 문화다양성협약 [文化多樣性協約, Protec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Contents]: 정식 명칭은 '문화콘텐츠와 예술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를 위한 협약'이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다자간투자협정(MAI)이 문화와 같은 비무역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후 세계문화부장관회의(INCP)와 문화다양성연대(CCD)·문화다양성국제연대(INCD) 같은 국제비정부기구(NGO)가 차례로 결성되었다. 2001년 11월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이 채택되고, 2002년에는 5월 21일을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로 선포했다.

(김현중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미국에서 물론 한미 FTA를 한다고 해 가지고 그게 그만큼 압력이 줄어드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만큼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슈를 항상 상대국과 이런 것을 협상하거나 아니면 관계를 맺을 때 생각하는 게 그 중에서도 대세에 영향력을 미치는 이슈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먼저 보고 대세에 미치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이나 하면, 제가 사실 통상교섭 본부장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공적자금 부분이었습니다. 외환위기를 맞고 난 다음에 공적자금으로 인해서 대출 안 받은 기업이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게 WTO법에서 불법 보조금이다 보조금 협정의 위반이기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40% 상대 관세를 맞아서 수출이 중단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이닉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레곤주 유진에 있는 걸 100% 가동시켰고 그 기술을 가지고 중국이 원했던 기술을 가지고 중국에 10억 달러를 가지고 가서 투자를 했고 또 10억 달러를 대출 받아서 투자를 해 가지고 기술이전까지 해 가면서 라인을 만든 것입니다.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은 공적자금이었는데 이 두 가지 분쟁이 무엇이나 하면 WTO에서 조선 분쟁과 반도체 분쟁이었습니다. 이 두 건을 지난 3년 동안 엄청 신경 써 가지고 승소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패소했다라면 의류, 전자제품, 신발류, 제지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갔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게 중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국 관계를 봤을 때 통상 관계 차원에서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고 어떤 문제들은 대세를 흔드는 것이고 이런 것을 잘 봐 가면서 균형을 잡으면서 우리가 유지를 해 나가야 됩니다. FTA를 한다고 해서 그만큼 압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항상 있는 것입니다. 무역 규모가 우리가 미국과 720억입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1,200억인데 그럴 때는 항상 통상 차원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얼마나 지혜롭게 잘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우리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제 팀에도 이승엽, 박찬호 같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협상가들입니다. 홍보하는 사람들

은 아니지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질문에서 홍보 차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갤럽에서는 80.4%가 지지한다고 나왔었고 무역협회에서도 보면 70.5%가 지지한다고 설문지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계속 더 열심히 해야겠지요. 홍보가 잘 됐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공무원 생활을 3년 해 보니까 이 분야가 참 힘들더라고요. 제가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김 본부장, WTO법 전문가한테 자문을 안 받았어?'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제가 공무원이 되는 순간 제가 WTO에서 4년 동안 근무했는데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홍보 역시 더 많이 해야 되고 신경은 많이 쓰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의 인지 차원에서 많이 올려놓아야 하는데 이걸 우리가 계속 더 많은 홍보 전략을 잘 효과적으로 집행해 나가면서 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 부처가 이걸 자기 일처럼 해 가지고 홍보를 하면서 관련 단체들과 계속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남성욱 고려대학교 교수) 5. 31 선거가 끝나면 FTA가 전면으로 여론에 부상할 것입니다. 이상만 교수님이 조용하다고 했는데 5. 31 선거 전까지는 문제 제기가 수면 밑에 있을 것이고 곧 수면 위로 올라갈 것이라고 봅니다.

저도 오늘 공부를 많이 했는데 공공시스템 체계를 지키겠다는 본부장님의 말씀에 안심이 됩니다. 저도 대학에 있고 변호사, 의사, 이 사회의 상류 계층들이 FTA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 시장을 뺏긴다는 차원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물건 파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서비스 부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지식인들, 대학만 해도 미국 대학에서 들어와서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쓰러진다는 공포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이고 변호사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 사회 상류계층을 위한 별도의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성 공단에 대해서 한마디 더 드리려고 합니다. FTA 논의하는데 개성공단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도 북한 연구자로서 주장입니다. 신문에 FTA 기사를 읽어보면 개성공단 기사가 채워져 가지고 이게 본질이

아닌데 메인 이슈로 변질이 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통일부의 고경빈 개성공단사업지원단 단장님이 오셨는데 개성공단 문제는 FTA에서 별도로 논의하는 채널을 갖추는 대책을 마련하면 어떨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경빈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단장) 개성공단에 대해서 주신 말씀에 다 공감하면서 몇 마디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성 공단 사업은 우리가 현실적인 여건 하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남북경협 모델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북 정책 측면에서는 그렇고 미국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도 미국의 대북정책의 취지에 부합하거나 최소한 그것을 보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 북한이 정직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사업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국가가 보조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기업이 북한 노동력을 고용해서 번 돈의 범위 안에서 북한 노동자의 몫을 주는 사업입니다.

개성 공단 사업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사업이 아니고 우리 정부의 핵심 사업입니다. 따라서 개성 공단 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비판을 받는다면 우리 정부가 받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개성 공단에 있는 기업은 100% 우리 기업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부자재도 전부 남쪽에서 올라가고 생산된 상품도 전부 남쪽으로 가지고 내려오는 우리의 공단입니다.

두 번째는 개성 공단의 경제 활동과 관련해서 그 규율한 법규는 개성이라는 곳이 지역적으로 북한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북한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이지만 북한이 제정한 특구법에 따라서 북한의 일반법의 적용을 최소한 경제 분야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북한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을 배제하고 모든 법규를 남북이 합의로 만들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임금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이 조항, 임금 직불 문제도 남북이 이미 임금과 관련된 합의된 규정에 의해서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모든 남북 합의가 그렇듯이 합의한 시점부터 이

행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준비 단계를 거쳐서 이행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 북한 노동자 임금 직불 문제가 바로 후자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북한은 일방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외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고, 외환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환 집중 관리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80년대 중반까지 외환이 부족했기 때문에 중동에 우리 근로자들이 가면 그분들이 달러로 직접 자기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 통장에는 우리 원화로 환전을 해서 원화로 임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 임금 직불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외환 집중 관리제²⁾라든가 북한 내부에서 적용이 되는 제도를 부분적으로 개성 근로자들의 여건에 맞게끔 환전소를 만든다거나 거기에 관련된 제도를 보완한다거나 이런 것에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회가 날 때 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국내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개성 공단 사업이 어떤 북한의 보상 차원의 사업도 아니고 우리의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만약 FTA에서 개성 공단에 대한 호의가 주어진다면 그건 1차적으로 북한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기업에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호의적으로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박훤일 경희대학교 교수) 오늘 김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저는 한 가지만 여쭙어 보겠습니다. FTA 일정이 발표됐을 때 언론에서는 우리나라 협상 전문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용장 밑에 약졸없다고 할까요? 오늘 본부장님 보니까 굉장히 인파이터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협상전술이라고 할까요? 처음에 만만한 상대를 골라서 스파링 하듯이 물리칠만한 전술을 갖고 계시는지 여쭙어 보고 싶습니다.

2) 북한은 외환집중관리제를 통해 외국인들의 외화현금을 지정된 은행 또는 외환교환소에서 '외화와 바꾼 돈표'와 바꾸도록 함으로써 북한 내에서는 외화현금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은 북한원과 똑같은 단위가 표기된 '외화와 바꾼 돈표'를 가지고 외국인 전문상점에서만 물건을 구매해야 한다.

(장달중 서울대학교 교수) 제가 진보적인 학자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 얘기를 학생들한테 말하기가 자신이 없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FTA 협상을 할 때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 가지고 행정부가 나서서 이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절차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과정 속에서 본부장께서 미국에 가서 FTA 협상을 개시한다고 선전한 것이 굴욕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걸 들어서 상당히 혼란스러웠는데 입장을 설명해 주십시오.

(김현중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우선 굴욕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과 중미 CAFTA가 있지 않습니까? 두 표 차이로 비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부장이 좀 와 가지고 같이 발표를 하면 초당적인 차원에서 민주당, 공화당 의원들을 다 나오게 해 가지고 처음부터 미국 국회에서 이 비준을 받는 데 문제없는 것을 만들어 주는 데에 도와달라고 SOS를 받았습시다. 그런데 그걸 제가 응한 것입니다.

제가 그런 SOS 요구를 받고 간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미국뿐만 아니라 어디든 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반미에 대한 게 좀 섞여 있는 질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미국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가 FTA를 하는 데 우리 수도에서 같이 발표하는데, 발표하면 우리가 이걸 출범시키는 거나 협상이나 아니면 나중에 비준안에 동의되겠다 싶으면 저는 갑니다.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굴욕외교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굴욕외교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한일 합방 같은 경우는 굴욕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통상교섭 본부의 실적을 보고 평가를 해 줘야 됩니다.

첫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와 조선업 공적 자금에 대해서 WTO에 가서 승소를 했습니다.

두 번째, 1965년도에 250만 속 밖에 못 받은 것 협상해 가지고 1,200만 속 받았습니다. APEC 시에 그 자리에서 러시아 장관이 전화한 후에 중국은 소진(消盡)하지 않은 명태 6천통 쿼터 남은 것을 한국 쪽에 돌려라 해서 그 자리에서 받았습니다.

중국에 수출하는 데에 통관 절차 한번 보세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쉽게 통과 됐는지를 보십시오. 그런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동남아 국가에 진출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바꿀 때마다 우리 기업인들 나쁜 방향으로 타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가 가지고 얘기합니다. 프로젝트 발주할 때마다 가 가지고 이것 한국 기업 쪽에 좀 달라고 해 가지고 결과도 냅니다. 미국에 가서는 미 해군에 물건을 납품할 수 있게 법까지 바꾼 적도 있습니다. 미국법을 바꾼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 모 나라에 가서는 이동통신 라이선스 달라, 모 나라에 가서는 부동산이 취소된 것을 다시 취소해 달라고 다 합니다. 다만 이것을 제가 발표를 못해서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는 제가 굴욕적이라는 건 절대로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미국 헌법에 보면 미국은 통상이라는 게 오너십(ownership)이 국회에 가 있습니다. 다만 TPA 무역촉진법에 의해서 국회가 대통령한테 위임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내년 6월 30일에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회에서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TPA가 끈다면 그래도 FTA를 계속 협상할 수 있느냐 이론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최종적인 패키지(package)를 냈을 때 미국 국회의원 450명이 알래스카 출신은 우리 명태에 대해서 관세를 좋게 해 주고 남부 출신들은 우리 땅콩 같은 것 좀 잘 해 주고 북쪽에 있는 미시건 국회의원들은 자동차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모든 것을 다 소위 말하자면 모든 것을 다 협상결과를 다 다시 터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TPA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문 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셨는데 이번에 44명을 뽑았습니다. 국장 하나에 인력 44명을 뽑았는데 그 44명은 사법 연수원, 기업, 타 부처의 전문가들을 다 뽑았습니다. 외교부 직원은 없습니다. 타 부처에서 직원들을 다 뽑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되는 FTA 멕시코, ASEAN, 캐나다, 인도, 여기에서 또 과거에 FTA를 계속 협상해 왔던 베테랑급들을 한미 FTA를 맡겨놓았습니다. 또 현재 지금 통상

베테랑 급들을 현재 4개 FTA 협상 쪽으로 인력을 이동했고 새로 뽑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 중에 반 정도는 즉각 FTA에 투입이 될 수 있는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입 시켰습니다. 나머지는 매일 우리가 관리 하는 통상 관련에 대해서 그 일을 맡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인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갖고 있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협상 팀에도 박찬호나 이승엽 같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협상을 하면서 저도 변호사 생활 20년을 했는데 호락호락한 협상은 안 합니다. 실재를 보고 얘기합니다. 사안을 평가할 때 실재를 보고 얘기해야 됩니다.

우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서비스에 대해서는 공공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일본이 교역 시장을 개방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외국 대학이 가서 잘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공공분야가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의료보험 같은 경우도 모든 국민들에게 수혜가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에 사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얼마나 불편합니까? 비싸기도 하지만 우선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A 병원은 되고 B 병원은 안 된다. 이런 것까지 다 구분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떤 병원에 가서도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제도를 살려 가면서 우리는 공공분야를 계속 보호할 부분은 보호하고 협상을 계속 해 나갈 예정입니다.

(길정우 중앙일보 전략기획담당 이사) 많은 분들이 현안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줄 수 있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현종 장관께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인 얘기지만 80년대 말에 제가 워싱턴 대사관에서 미국의회 담당관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소위 말하면 슈퍼 301조 미국 통상법 논란 과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지금 열린 우리당에 가 계신 정우영 대사님을 모시고 미국 의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는데 그때 많이 만났던 사람이 미 상원 재정위원회(finance committee)의 수잔 스왑(Susan Schwab)입니다. 이 분이 얼마 전에 미국 USTR이 됐습니다.

오늘 다시 한미 통상 문제에 저 자신이 이 문제를 접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방 선거 이후에 여러분들을 다시 뵈는 때는 국내 정치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6월이 되겠고 오늘 아침 이른 시간부터 좋은 말씀해 주시고 두 분 토론에 참가해 주시고 아침부터 참가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본부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RI

정리 및 교열

이해정 연구원 (hjlee@hri.co.kr) ☎ 02-3669-4024

HRI 經濟 指標

👉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P)	2006(E)
국 민 계 정	경제성장률 (%)	8.5	3.8	7.0	3.1	4.7	4.0	4.5
	최종소비지출 (%)	7.1	4.9	7.6	-0.3	0.4	3.4	3.6
	민간소비 (%)	8.4	4.9	7.9	-1.2	-0.3	3.2	3.5
	총고정자본형성 (%)	12.2	-0.2	6.6	4.0	2.1	2.3	3.1
	건설투자 (%)	-0.7	6.0	5.3	7.9	1.1	0.4	1.5
	설비투자 (%)	33.6	-9.0	7.5	-1.2	3.8	5.1	5.5
대 외 통 관 래 준	경상수지 (억 \$)	122	80	54	119	282	166	80
	무역수지 (억 \$)	118	93	103	150	294	235	120
	수출 (억 \$)	1,723	1,504	1,625	1,938	2,538	2,847	3,120
	증가율 (%)	(19.9)	(-12.7)	(8.0)	(19.3)	(31.0)	(12.2)	(9.6)
	수입 (억 \$)	1,605	1,411	1,521	1,788	2,245	2,612	3,000
	증가율 (%)	(34.0)	(-12.1)	(7.8)	(17.6)	(25.5)	(16.3)	(14.8)
기 타	소비자물가 (평균, %)	2.3	4.1	2.7	3.6	3.6	2.7	3.2
	실업률 (%)	4.1	3.8	3.1	3.4	3.7	3.7	3.5
금 융	원/\$ 환율 (평균, 원)	1,131	1,291	1,253	1,192	1,145	1,024	980
	국고채금리 (평균, %)	8.3	5.7	5.8	4.6	4.1	4.3	4.6